

전여대협 하반기 사업계획 (초안)

수신 : 각급 단위 학생회
발신 : 9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1. 정세

2. 7,8월의 대략적인 평가

3. 하반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반기 핵심 과제)

- 반미자주의식을 높여가면서 미국에 의한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현재의 반미반전평화운동을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더욱 상승발전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여학단위가 주체적으로 투쟁하자.
- 높아가는 호주제 폐지의 국민적 공감대를 대학 내에서 더욱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호주제 폐지를 앞당겨야 한다. 대학생들의 호주제 폐지 의지를 표출하는 각종 선언운동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와 이 사회의 각종 성차별주의를 반대하는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핵심일꾼들이 제 역할을 높여 조직생활을 잘 만들어나가고, '대중 속으로' 학우 대중 속으로 들어가 구체적이고 끈끈하게 학우들을 사업과 투쟁에 조직하자
-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과 투쟁을 통해 학우들을 주인주체로 세워나가고, 대중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와 과제를 분명히 하며 한해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4. 하반기 시기규정과 목표 (전반적인 과제)

- 반미자주의식을 높여가면서 미국에 의한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현재의 반미반전평화운동을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더욱 상승발전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 높아가는 호주제 폐지의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호주제 폐지를 앞당겨야 한다.
-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으로, 핵심일꾼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대중 속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학습과 투쟁을 더 힘차게 벌여내고 각 단위 대중을 확실히 책임지는 하반기를 살아가자.
- 추석을 맞아 평등명절 만들기 운동을 진행하고, 정기국회를 계기로 생리대 부가세 면세운동을 진행하는 등 계기를 살려 반가부장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 총여학생회/단대여학생회 선거를 의 조직화의 공간으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내어야 한다.
- 2004년 총선이 진보적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이다.

5. 하반기, 이렇게 투쟁하자!

□ 하반기 주요 투쟁과제

1) 반미반전운동 / 공동선언 이행 투쟁

스트라이커 부대 파견, 울지포커스렌즈합동훈련 등 미국에 의한 전쟁연습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전쟁 위험은 고조되고 있다. 8월말 '6차회담 내에서의 북-미간 양자회담'이 진행되면서 북미간 대결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동안 진행되어왔던 이남사회의 반전평화운동은 점차 이땅의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미간 대결이 정점에 치달고, 이남의 반미반전평화운동이 더욱 대중적으로 진행되는 등 7천만 겨레와 미국의 싸움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상반기 동안 진행해왔던 반미반전평화운동을 더욱 대중화하면서 미국의 전쟁위험을 막아내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정책을 파탄내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주한미군 철수'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험도, 미국의 지배정책도 파탄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즉, 한반도 전쟁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북미불가침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반미반전평화운동을 강화하면서, "궁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더욱 대중적으로 합의하고 투쟁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중요한 것은, 반미반전운동 / 공동선언 이행 투쟁에 대한 총여학생회 자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② 정세와 본질을 흐리는 각종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고, 주한미군 철수를 더욱 대중적으로 합의해나가기 위한 의식화 사업을 펼쳐야 한다.

금요유인물을 통해 내용 제출

③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에 대한 선전을 진행하자.

전여대협 의장의 평양 방문기가 제출되면, 인터넷 퍼나르기 등 함께 선전해보자.

④ 10.1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가)을 여학단위들을 추동하여 잘 준비해가자.

10월 1일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은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힘있는 투쟁이 될 것이다. 여기에 누구보다도 여학단위들이 힘을 결집하여 성대하게 성사해내자.

▶ '한반도 자주와 평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과여부장/여성 동아리 학회장 선언'(가칭)을 진행하자. ◀

과여부, 여성소모임 구성원들을 반미반전,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면서, 대학생 행동의 날을 주동적으로 준비해갈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 상황에 맞게 여학생 선언을 진행해보자. 단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행동의 날을 주동적으로 준비해나가면서 여학우들이 이 투쟁에 대한 주인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과여부장/여성동아리 학회장 선언에 참여한 학우들이 다른 학우들을 조직하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과부장이나 소모임 장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우선 의식화, 조직화하는 차원으로 제기하는 사업이다.

▶ 단위 상황에 따라 'OO과 여학우, OO 여성 학회 동아리 선언'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다. ◀

여부장을 학회 동아리 회장들이 앉아서 자기 단위 학우들을 책임지며 더 적극적인 주체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위별 실정에 따라 바로 위에 언급한 내용과 지금의 내용을 결합해서 '한반도 자주와 평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여학생 선언'이라는 식으로 함께 진행해도 괜찮을 것이다.

▶ 10월 1일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을 여학우들 대행진의 날로! ◀

8월 15일 청년학생 통일대행진을 보도를 통해 접했을 것이다. 각 대학 지역별로 상이 다르게 10월 1일이 준비되었지만 학우들의 참여를 만들어내는 대중 행동전으로 기획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위의 선언운동에 참여했던 학우들을 모아서 집단 행진 대열, 퍼포먼스 대열들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함께 준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기본 행진 퍼포먼스의 내용을 제출할 예정

⑤ 흐름

8월말~9월초	남북청년학생대표자회의
10월 1일	한반도 자주와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10.1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
10월 초	2회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일정 미정	남측 여성들 평양 방문 (일정은 9월 9일 이후 실무적 논의)
11월 3일	반전평화, 주한미군 철수 청년학생 인강 따잇기 대회
11월 말	반전-반세계화 2003년 전국 민중대회
12월 31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100만 인강 따잇기 대회

2) 호주제 폐지 투쟁

호주제 폐지의 객관적 근거가 그리 밝은 것은 아니다.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개정안을 발의한지 2달이 지나서야 겨우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했으나 대부분이 호주제 폐지에 대해 유보 혹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예상했던 바와 같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태도는 심사리 변화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싸움에만은 호주제의 폐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말에는 1만명의 남성들이 호주제 폐지 남성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르면 9월에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정부입법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호주제에 대한 위헌심사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판결이 나오면 호주제 폐지 투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더욱 폭넓게 확산시켜야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호주제'라는 법을 폐지하는데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 투쟁은 가부장적 법제도 철폐의 내용도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주의를 타파하는 투쟁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로 비롯된 여러 문제점들을 얘기함과 동시에 뿌리깊은 성차별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얘기해야한다.

호주제 폐지 투쟁의 방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대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간 호주제 폐지는 대학 내에서 그치지 대중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왔다. 특히 대중사업이 있을 때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이나 부모성함깨 쓰기운동을 간간히 진행하는데 불과했다.

하반기에는 그야말로 학우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합의해나가고 대중적으로 선언해나기면서 호주제 폐지를 앞당겨내자!!!

① 호주제 폐지 기획선전

-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각종 오해와 폐지의 이유를 실감나게 의식화하자.
- 앞서 말했듯 호주제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과 함께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의식화하자.
- 기본적인 내용은 전여대협에서 제출하게 될 금융유인물을 참고하면서, 대학 차원에서 더욱 창조적인 내용을 마련해가자.

② 호주제 폐지 선언을 대중적이고 다방면적으로 진행하자! (한총련 대의원 / 전학대회 / OO과 과)

호주제 폐지를 대중적이고 다방면적으로 합의해나가기 위해 아래의 몇가지 선언운동을 진행하자. 아래의 선언운동들은 각각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해가야한다.

▶ 11기 한총련 대의원 호주제 폐지 선언 ◀

한총련 대의원들이 호주제 폐지에 합의하며 호주제 폐지 투쟁에 대한 결의를 하는 <11기 한총련 대의원 호주제 폐지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기본적인 의식화와 호주제 폐지 선언에 대한 제안
- 중요한 것은 각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의식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 <11기 한총련 대의원 호주제 폐지 선언>은 하반기 대의원대회 공간에서 진행할 것이다.

▶ 과학생회장들의 호주제 폐지 선언 (전학대회/확대운영위/대의원대회 등) ◀

과학생회장들이 호주제 폐지 투쟁을 선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하 큰 의미가 있다. 과학우들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합의해나가고 함께해나갔다는 것을 결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선언운동은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 단위이자, 과학우들의 요구가 집체적으로 모이는 장인 전학대회/확대운영위/대의원대회(대학 별 체계에 따라)에서 진행되면 더욱 좋겠다.

- 전학대회 전에 과학생회장들을 미리 만나면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자.
- 전학대회장에서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전국 100개과 대학생 호주제 폐지 선언 ◀

전국의 100개과 학우들이 호주제 폐지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외적으로는 호주제 폐지 투쟁의 대중적 흐름을 형성한다.

- 각 대학마다 5개과 이상의 학우들이 호주제 폐지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진행하자.
- 9월 20일까지 <전국 100개과 대학생 호주제 폐지 선언>을 진행하고, 9월 25일경 전여대협 차원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핵심·과를 선정해, 과학생회장을 먼저 만나 호주제 폐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과 호주제 폐지 선언을 함께할 것에 대해 잘 얘기하자.
- 개강총회에서 꼭 얘기하고, 개강총회에 참석한 학우들의 힘으로 호주제 폐지를 신'할 수 있도록 하자.

-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여학생회(부)가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위에 서술한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 전국 100개과 대학생 호주제 폐지 선언문은 8월말 제출 예정

③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대학 상황에 맞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 호주제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 배너를 학내 사이트에 널리 퍼나르자.
-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에 대한 단위별 목표와 활동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자.

④ 호주제 폐지 대중강연

호주제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중적인 인사를 초청하여 대중강연을 기획해보자.

⑤ 10월 3일 개천절을 양성평등의 새날을 여는 개천절로!!!

10월 3일 개천절. 그러나 여성은 하늘이 열린 이후 대부분의 시간동안 성차별적 문화 속에서 고통받아왔다. 특히 호주제로 인해 2등 인간의 굴레가 덧씌워지고 노골적인 성차별문화에 온몸으로 저항해왔다.

그러나 2003년 10월 3일 개천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자. 호주제를 이 땅 모든 여성의 힘으로 폐지해내고, 성차별적이고 여성억압적인 이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새 날을 여는 개천절로 만들어내자.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하여, 양성평등의 새날을 여는 개천절로 만들어내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자.

▶ <새 하늘 새 땅을 여는 대한민국 여성축제>(시청 앞)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여성문화예술기획, 개인별신분등록 실현 공동연대 등이 주축이 되어 '새 하늘 새 땅을 여는 여성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여성축제를 준비중이다. 전여대협 또한 여기에 함께 해 여성축제를 성대히 준비해갈 것이다.

** 여성축제 대학생 준비단 구성 **

- '새 하늘 새 땅을 여는 여성들의 모임'에 제안하여 여성축제 대학생 준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 대학생 준비단이 구성되면, 서울/경인지역의 총여학생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당 지역의 타 대학들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함께 하자.
- 서울, 경인지역은 총여학생회에 함께 하는 학우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조직화하여 참가하자.
- 대학생 준비단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 계획 제출 예정.

▶ 10월 3일 전국동시마다 호주제 폐지 마당사업 ◀

상황에 맞게 지역 차원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공동 마당사업을 기획해서 시내 거점에서 꼭 진행할 수 있게 하자.

중요한 것은, 10월 3일 하루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3일 행사를 포함하여 준비과정에서 함께 호주제 폐지 투쟁을 대중화시켜가는 것이다.

지역 여성단체와 함께 해도 좋고, 지역여대협 차원으로 해도 좋겠다. 9월초부터 제안하고 함께 계획해보자.

⑥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투쟁

호주제 폐지와 민법개정안 마련을 추진해가는데 있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1차적으로 걸리고 있는 현황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국회 본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위원 명 중에서 4명을 제외하고는 반대나 유보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투쟁을 벌여내자.

- 호주제 폐지에 대해 유보 및 반대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 혹은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보입장 : 함승희(민주당,서울노원), 조순형(민주당,서울강북), 최용구(민주당,인천부평), 김기춘(한나라당,경남거제), 김용관(한나라당,경남산청합천), 함석재(한나라당,충남천안) / 반대입장 : 심규철(한나라당,충북보은옥천영동), 최연희(한나라당,강원동해삼척), 최병국(한나라당,울산남구), 김학원(자민련,충남부여)

3) 반성폭력 운동 및 반가부장제 투쟁

① 반성폭력 운동

계속적으로 진행해오던 반성폭력운동을 학우들의 의식에 맞게 내용을 생산하고 학우들과 토론해가며 의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반성폭력 의식화
- 최근 군대 내 성폭력이 기사화되는만큼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의식화와 토론을 진행해보도 좋겠다.
- 대학 차원의 반성폭력 정책 마련 요구 (성폭력상담실의 실효성 높이기, 교양과목 등)

② 평등명절 만들기

평등명절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지난 몇 년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를 대학가에서 더욱 대중적으로 의식화할 필요가 있다.

개강 직후 추석이 있는만큼 평등명절을 만들기 위한 의식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내자.

- 9월 첫주부터 평등명절을 위한 기획선전을 진행하자.

기본적인 내용은 불평등한 명절의 모습, 우리 가족의 명절은 어떤 모습인가, 명절 이렇게 바꾸자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전여대협에서 낼 금요유인물을 참고하자.

스티커 실문, 화장실 자보, 웹자보, 만화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보자.

③ 생리대 부가세 면세운동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온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운동'이 최근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여야 의원 24명이 국회에 '생리대와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허용하라'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생리대 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반기, 생리대 부가세 면세가 입법화되고 실질화될 수 있도록 생리대 부가세 면세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자.

- 생리대 부가세 면세의 정당성에 대해 의식화하고 학우들과 토론해보자.
- 대학 상황에 맞게 <생리대 부가세 면세 서명운동>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다.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월 유사법제를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일제식민시대 전쟁범죄자이자 침략자인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을 '쇼와의 날'이라는 경축일로 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라크 파병 결정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자위대를 해외로 파병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징병 등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및 가족 150여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국적 포기각서를 정부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은 수년에 걸친 오랜기간동안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여오며 사회와 배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그 때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약'을 근거로 들어 재판에서 패소시켜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1965년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일본측 이익 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했으며, <일제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무관심하기 이틀데 없었다.

이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함께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투쟁을 벌이겠다고 7,80세가 넘는 피해자들이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전여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을 중심으로 반일투쟁을 펼쳐내자.

①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

수요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며, 대학 상황에 맞게 수요시위를 직접 주최해보는 것도 좋겠다.

②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의 내용

-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 반대

미국에 의한 전쟁기운이 높아져가고 있는 이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 규탄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죄없이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막아나가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적 기초를 가지고 의식화하고 투쟁하자.

③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쟁과 여성인권 센터'에서 진행하는 순회강연 '전쟁과 여성인권'을 대학 사정에 맞게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다. (정대협 02-365-4016)

5) 2004년 총선을 준비하자!

2004년 총선은 진보정당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광범위한 민족민주선선을 형성해가며 진보정당운동을 대학사회에서 꽃피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눈여겨보아야할 것은, 2004년 총선은 민주노동당이 여성의 정당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잡고 여성의 진보적 정치세력화에 획을 긋는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지역 여성대중이 여성의 진보적 정치세력화에 주체가 되는 과정이며, 여성주의 정책을 입법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장이리는데서 그 의의는 더욱 커진다.

전여대협은 2004년 총선을 내실있게 준비해야할 것이다.

- 대학 상황에 맞게 강연사업 등을 기획해볼 수 있겠다.

- 12월 2004년 총선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다그치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와의 간담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자.

6) 여성민중생존권 투쟁 및 연대사업

① 여성농민

- 농학연대일꾼수련회 8.29~30

- 가을농활

- 여성농활 : 여성농민회와 연대하여 짧은 기간일지라도 여성농활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능한 지역은 여성농활을 계획해서 여성농민회의와 간담회 진행 등의 내용을 채워넣어 여성농활을 진행해보자.

② 여성노동자

③ 여성 취업 - 여성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총여학생회 대중사업을 계기로 만들어내자.

2] 사업과 투쟁을 '일상화'하자!

'사업'은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여성운동으로 의식화하며,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모아내기 위한 하나의 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총여학생회의 대중사업은 그것이 중심목표인 듯 주객이 전도되어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대자보를 쓰든, 기획선전을 하든, 학우를 만나든 간에 그것이 단순히 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 머무르거나 1,2번 정도 일회적으로 진행되면 선전물을 보는 학우들에게, 총여 일꾼을 만나는 학우들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총여학생회 사업의 본 모습은 한 학기에 한번 큰 사업하는데 있지 않다.

일상적으로 만나고, 일상적으로 의식화하며, 일상적으로 조직화하자!!!

1) 학우들과의 만남

대학별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세워서 학우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자. 반드시 계획을 세워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대중의식화

① 일상 선전을 기동적으로 진행하자.

신문에는 여성관련 기사가 자주 나오지만, 학내에서 여성 관련 속보를 접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 총여학생회는 단순히 여성관련 대중사업 몇가지, 여성학차사업을 때때로 담당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여성 관련 기사/소식/속보 등을 기동성있게 선전하자. 그리고 그에 대해 학우들이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총여학생회의의 논평을 짧게라도 함께 선전하자.

- 대자보와 온라인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신문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는 등 학교신문을 잘 활용해보자.

② **총여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을 지속적으로 선전하지.**

총여 대중사업을 할 때만 몇가지 여성관련 내용을 의식화한다든지 혹은 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의식화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내는 선전을, 보면 얼마나 보겠는가?
하반기 주요 투쟁과제로 제출되고, 총여학생회에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가져갈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의식화를 진행하자.
1주일에 한번씩 내는 대자보나 웹자보여도 좋고, 화장실 소식지나 기획자보, 무엇이든 좋다.
계획만 하면 방법은 무한대다. 반드시 '지속적으로' 진행하자.

③ **전여대협 금요유인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매주 금요일 제출 예정)

3) **대중조직화 - 구체적 대중을 중심으로**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에 함께할 사람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상적으로 만나면서 조직화해가자.
- 단대 / 과 여학생회(부), 여성소모임 및 동아리, 과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각각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
- 대중의식화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

6. **조직사상운동**

방중 진행한 55일 행동 등 각 단위별로 방중 평가를 진행하고 그에 기반해 조직사상운동 계획을 꼼꼼하게 세웁시다. 모두 아시다시피 하 반기는 눈을 떴다 감으면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정세는 아주 급박하고 엄중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과 투쟁도 많습니니다. 이를 때일수록 더하겠지요.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하반기를 제대로 살아갑시다.

1) **우선, 각 단위 조직생활을 바로 잡고 안착화합시다.**

- 핵심일꾼들이 먼저 나서야합니다. 삼십이나 회장단 모임 등 핵심일꾼들이 먼저 계획하고 그것을 꼭 실행하겠다는 결심으로 조직생활을 계획하여 하반기 총여학생회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나갑시다.
- 그리고 늘 총화를 잘 하여 혁신과제를 찾아보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함께 계획하며, 서로서로 더 열심히 생활하여 일꾼단개 학생회 간부답게 살아가봅시다.

2) **'대중 속으로' 학우, 대중 속으로 들어갑시다.**

6명의 전여대협 통일선봉대원들이 통선대 활동 기간 동안 반전평화 범국민 서명운동을 무려 2176명의 시민들에게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시민들을 정말 많이 만나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를 것 같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참여하겠다고 행사가 몇 시, 어디냐며 물으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더 꼼꼼하게 알려나간다면 더 큰 힘으로 모아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니다.
우리 학우들 대중들, 그렇게 만나봅시다. 대중 속에 답이 있습니다.

3) **학습 없이 실천투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학에 나름대로 학교별 단위별로 학습을 진행한 곳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일상적인 정세토론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정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을 계획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 이제 통일은 눈 앞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다고 하여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이 있다면 보다 힘차게 강하게 투쟁하며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자기 안목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학습에 힘을 꼭 쏟읍시다.

4) **각 단위 학우들을 꼭 책임집시다.**

과여부장 또는 여학생회장, 단대 여학생회장 또는 여학생위원장 등 자기 단위 학우들을 모두 만나서 하반기 사업과 투쟁을 함께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학우들이 주체로, 단대 학우들이 주체로 되는 그런 사업과 투쟁도 준비해야겠지요. 단과대학총회 여학우 총회 등을 통해 반미반전 공동선언 이행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보거나 호주제 폐지 촉구문을 채택해보거나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겠지요!

총여학생회 일꾼들 또한 전체 학우들을 다 만난다는 결심으로 단위 일꾼들의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총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 단대 등 기층 일꾼들이 자기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틈틈히 지도해주어야 합니다.

7. **주요사업**

- 개강사업
- 8월말~9월초 남북청년학생대표자회의
- 총여학생회 여성문화제/대동제/여성주간 등
- 10월 3일 <새 하늘, 새 땅을 여는 대한민국 여성축제> / 10월 3일 전국 동시다발 호주제 폐지 미담사업
-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 남측 여성들 평양 방문 : 일정 미정, 9월 9일 이후 실무적 논의
- 총여학생회 / 단대 여학생회 / 과 여학생회에 대한 대중적 평가 사업
- 총여학생회 / 단대 여학생회 선거
- 총여학생회장단 모임 (전국 혹은 지역별) (가)
- 2004년 총선을 위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와의 간담회 (가)

8. **하반기 전체 흐름 / 일상활동의 예**

이제까지 얘기한 것을 토대로 하반기 일상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예를 아래에 들어보았다. 꼭 아래와 같이 하지 않아도 좋지만, 대학 상황에 맞게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자.

	대중사업 및 의식화			대중조직화	일상활동
	반미반전	호주제폐지	그 외		
9월 1제주	-8.15 민족대회에 대한 보고 선전	-개강총회에서의 <호주제 폐지 과학우 선언운동> -한총련 대의원 호주제 폐지 선언	-개강에 따라 전반 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의식화 -하반기 사업계획 의식화 -평등명절 만들기 기획선전	조직화 대상 -단대 여학생회(부) -과 여학생회(부) -여성소모임 -과학생회장 -단대 학생회 및 학생회장	개강사업 - 유인물/소식지 배포 - 과 개강총회 참가 등 매주 월요일 - 3개 강의실 방문
9월 2제주	-명절유인물에 내용 포함 제작배포	개강총회에서의 <호주제 폐지 과학우 선언운동>	평등명절 만들기 기획선전	조직화 계기 및 내용 <호주제 폐지 과학우 선언운동>, <전학대회 호주제 폐지 선언운동> -총여학생회 대중사업 -수요시위 -여학일꾼 : 반미반전 여학생 선언	매주 수요일 저녁 - 도서관 휴게실 방문 매주 월 수 토 -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매주 화 목 - 북미불가침조약체결서명운동
9월 3제주	-반미반전 여학생 선언(가칭)을 하기 위한 의식화 -일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주관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서명운동	-호주제폐지 기획선전 -개강총회에서의 <호주제 폐지 과학우 선언운동> -전학대회 호주제 폐지 선언운동			혹은 9월 3제주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9월 45제주 불가침조약 체결서명운동 (자체적으로 주별 혹은 요일별로 서명운동 계획 잡아서 진행) 매일 학우들이 많이 들어오는 홈페이지, 카페, 목록을 뽑아놓고 하루 3군데씩 들며 글 남기기
9월 4제주	-반미반전 기획선전 -반미반전 여학생 선언(가칭)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서명운동	-총여 대중사업에서 호주제 폐지 대중강연 -국회법시위 국회의원에 대한 공개행위서한 발송	(총여 대중사업을 계기로) -생리대부기싸이세운동 선전 및 서명운동 -여성취업	조직화대상 -위와 같음 조직화 계기 및 내용 -총여 대중사업 -개천절 호주제 폐지 행사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 -여학일꾼 : 여성노동	9월 3제주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9월 45제주 불가침조약 체결서명운동 (자체적으로 주별 혹은 요일별로 서명운동 계획 잡아서 진행) 매일 학우들이 많이 들어오는 홈페이지, 카페, 목록을 뽑아놓고 하루 3군데씩 들며 글 남기기
9월 5제주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 선전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서명운동	개천절 행사 선전	-1차 여성노동 (1박2일)		매일 1명이상 여학단위 구성원 만나기
10월 1제주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	-개천절 시청 행사 -전국동시다발 호주제 폐지 미담사업			매주 3명의 과 학생회장 만나기
10월 2제주		-개천절 행사 보고			
10월 3제주			-총여/단대와 과 여학생회(부) 대중적 평가 사업 -2차 여성노동 (1박2일)		
10월 4제주					